

NEWS

CBS

CBS 신임 사장 김진오 취임

CBS 신임 사장으로 김진오 전 광주 CBS 본부장이 6월 1일 취임했다. 김진오 신임 사장은 1988년 CBS 본사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광주 CBS 본부장을 역임했다. 김진오 사장은 '미디어 4.0 플랫폼 중심으로의 전환', '미래 성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무 구조를 튼튼히 하고 영향력을 강화하여 CBS를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CBS 신임 노조위원장 반태경 PD 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CBS 신임 지부장에 반태경 PD가 취임했다. 2005년 CBS 26기 공채 PD로 입사한 반태경 위원장은 CBS의 새 사장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적절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고, 광고 결합판매 제도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언론노조와 함께 행보를 맞춰 가겠다"라고 밝혔다.

MBC

영상콘텐츠 공모전 '내가 진짜 황금손' 개최



MBC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동행복권과 함께 복권 기금을 소재로 한 2021 영상 공모전 '내가 진짜 황금손'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복권 추천방송 홍보와 복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5월 6일부터 6월 6

일까지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장, 그리고 MBC 복권추천방송에서의 수상작 방영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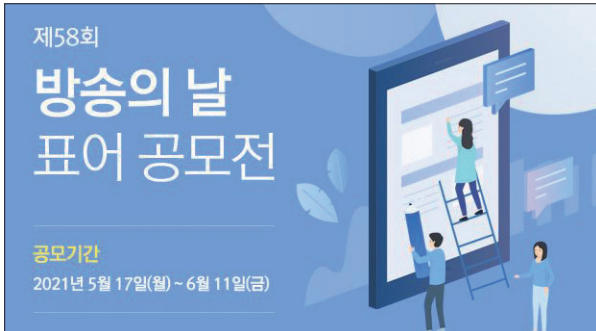
KT스카이라이프

TPS 역량 집중 및 콘텐츠 강화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알뜰폰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을 출시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결합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단방향 위성방송이라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의 이미지를 탈피, 특히 1분기에 TPS(TV+인터넷+통신, 3중 서비스 결합) 상품을 본격 판매하기 시작하며 결합 가입자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OTS를 제외한 스카이TV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합친 TPS 가입자는 1분기 말 기준 6만2000명 순증하며 전분기 2만9000명 대비 약 114%가 증가했다. 모바일 신규 가입자 중 스카이TV와의 결합은 12.2% 수준으로 모바일과 TV 상품의 결합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업체 현대HCN 인수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방송협회

‘제58회 방송의 날 표어 공모전’ 개최



한국방송협회는 제58회 방송의 날을 기념하여 ‘제58회 방송의 날 표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방송 주권 회복일(9월 3일)을 기념하고, 전·현직 방송인의 화합과 노고를 기리는 제58회 방송의 날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는 표어로 7월 이후 대상과 우수상으로 나뉘어 시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TBS

역사 공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역사 스테이 흔적’ 신설



TBS TV에서 새로운 역사 공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역사 스테이 흔적’을 선보이고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 15분에 방송하고 있다. ‘역사 스테이 흔적’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역사가 머물러 있는 공간과 그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역

사학자 심용환이 진행을 맡아서 직접 그 시절, 그 공간 속에 남겨진 역사적 단서와 흔적을 찾아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EBS·세종시

‘EBS 세종센터’ 협약 체결



EBS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7일 세종시청 중정에서 ‘EBS 세종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EBS 세종센터’ 건립으로 고품격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확산,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첨단교육 콘텐츠·서비스 개발 등 교육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 ‘EBS 세종센터’의 안정적 건립을 위한 협력 △ 세종시의 ‘EBS 세종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인허가 등 행정적 협력 지원 △ 미래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사업 활성화 △ 지역적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다할 방침이다.

EBS는 세종시 국회 타운 계획이 구체화하면 ‘EBS 세종센터’의 세부적인 건립 계획 수립과 후보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2021년도 EBS 직원 공개채용

직무가설서					
채용구분	채용인원	채용대상	채용장소	채용기간	채용비율
1.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00%
2.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00%
3.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00%
4. EBS 시청률 향상	1	EBS 시청률 향상	1	EBS 시청률 향상	100%
5.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00%
6.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00%
7.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00%
8.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00%
9.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	방송 제작 및 운영	100%
10.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	방송 기획 및 운영	100%

EBS가 2021년도 신입/경력직 및 개방형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서 접수가 지난 5월 17일~24일까지 진행되었고, 신입/경력직은 서류 및 온라인 역량평가를 거쳐 필기, 실무역량평가, 면접이 8월까지 진행되며, 9월 중 임용 예정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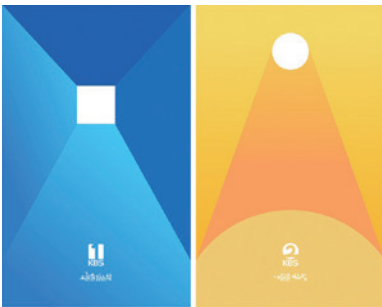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난 5월 3일 송정수 상근부회장을 선임하였다. 송정수 신임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산업기술팀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 융합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장, 서울지방우정청장 등을 두루 거친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송정수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가 대한민국 초일류 산업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파방송산업 진흥을 위해 협회의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KBS

KBS 1TV, 2TV 채널 디자인 변경



KBS가 5월 31일부터 새로운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KBS 1TV-오늘을 담는 창, 1TV는 사각형을 창(窓)으로 해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오늘을 담는 창(窓)의 역할을 한다. KBS 2TV-내일을 여는 빛, 2TV는 원형을 빛으로 해석, 웃음과 감동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로 내일을 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채널ID, 골이어, 연령고지, 주요프로그램 안내, 예고 포맷 등 채널을 감싸고 있는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했으며, 온에어 뿐만 아니라 KBS 내 본사, 지역의 모든 콘텐츠와 오프라인 건물, 실내, 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방송평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하였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기공식 열려



지난 5월 20일 고양시 일산동구 경주주택도시공사(GH) 고양사업단 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이현욱 GH 사장, 이재준 고양시장, 심상정·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역구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서북부 방송영상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GH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며, 사업비 약 6천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미디어시장의 위기 속에서도 “한류를 이끈 우리 미디어산업의 저력으로 혁신과 상생을 통한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가 글로벌시장에서 한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